

’94. 9. 9

기획경제위원회

主要懸案業務 報告

企劃管理室

차례

1. 국책대학 지정 추진
2. 행정의 품질관리제 추진
3. 「도 이미지 통합기획 (CIP)」 추진

국책대학 지정 추진

□ 국책대학 지정의 의의

- 정부에서는 신경제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지방대학 8개 공과대학을 선정 중점 지원 ('98년까지 5년간 총 2,000억원)
 - 지역산업과 연계된 고급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새로운 과학기술 산업에 부응하는 지역의 연구개발능력 향상
 -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무한경쟁시대를 이겨내는 기업을 지원
- 충북대학의 국책대학 지정을 위하여 도민 역량을 결집하여 함께 노력한 결과, '94. 8. 10일 교육부에서 선정 발표
 - 중앙의 객관적인 평가로 충북의 성장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
 - 우리 지역의 발전을 한걸음 앞당기는 전환점
 - 「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」에 크게 기여

□ 주요 활동상황

- 도의원, 학계, 경제계, 언론계 등 33명으로 구성한 「충청북도 국책대학추진위원회」를 '94. 4. 25일 발족 운영
 - 산·학협동 소위원회, 제2캠퍼스 설립 소위원회 구성 운영
 - 완벽한 실무적 준비와 체계적인 대외활동을 전개
 - 「21세기 공학교육발전계획」 수립 (별도 유인물 참고)
 - 「전자, 정보통신 중점육성계획」 수립

- 제2캠퍼스 설립방안 확정
- 산·학·연 공동기술연구원 설립계획 수립
- 지역컨소시엄 협약 체결 : 12개 업체
- 산학 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: 230여 연구소, 기업체 참여
- 도의회 및 지역언론사의 적극적인 협조
- 도민의지와 힘을 모으는 등 분위기 조성

□ 지역에 파급되는 효과

- 지역의 모든 대학의 자체 연구능력은 물론 공동개발능력을 높여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계기
- 대학간 공동연구, 대학과 산업간 공동연구 사례가 활성화
- 지역의 산·학 협력체제가 확립
 - 각대학은 산업현장 기술과 연계되는 과학기술교육으로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을 산업인력으로 활용
 - 대학간 컨소시엄 형식으로 공동 기술개발 연구팀에 참여
 - 직접 투자하지 아니한 중소기업에서도 필요한 부문에 있어서 기술개발 협약을 체결하여 활용
- 전국적 규모의 반도체, 정보산업지대 형성
 - 청주테크노밸리 건설, 대학신도시 유치 등을 추진하여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확대

행정의 품질관리제 추진

- 「도정의 경영화」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전직원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며
- 이를 구체화해 나갈 실천방법으로서 기업의 「품질관리제」를 도입 시행

1. 추진개요

□ 개 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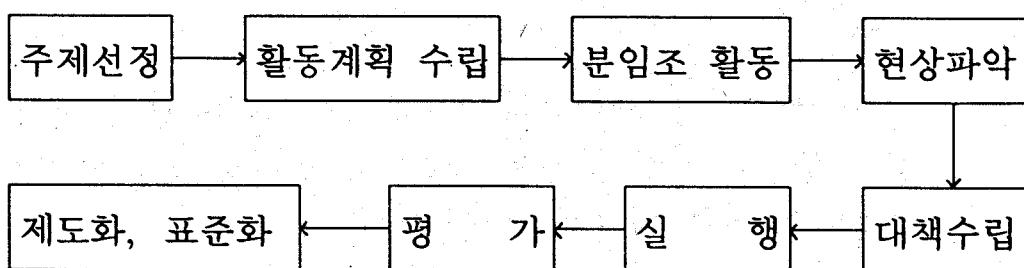
-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단위 조직원들로 분임조를 구성하여 도정 각분야의 제반 문제를 자발적인 회의를 통하여 과학적인 접근방법에 의해 해결해 나감으로써
- 자기개발은 물론 상호개발을 통하여 신바람나는 직장풍토속에서 시책, 사무, 사람의 질을 높이게 되고, 궁극적으로 질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

□ 추진체제

- 품질관리추진협의회
 - 위원장 : 부지사, 위원 : 실국장
 - 기능 : 품질관리 활동에 대한 총괄, 조정, 지원
- 품질관리부문추진협의회 : 실국단위 실과장으로 구성
 - 실국원의 품질관리 활동에 관한 조정, 지원
- 분임조 : 실과직원 7~10단위로 자율적 구성
 - 구성원의 합의에 의하여 활동주제 선정, 개선활동 전개
- 자문기구 : 경영화 연구자문팀(10명), 도정자문단(10명)

□ 추진방법

- 개선방법 : 조직, 재정, 사무, 지역개발분야
 - 작고 손쉽고 가까운 것부터 문제 도출 해결
- 개선방향 : 가장 빠르고, 친절하며, 값싸게
 - ※ 「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」 거양이 목적
- 활동단계 : 단계별 활동요령에 의거 실행



☞ 문제 적출 및 해결방법 (QC수법) 활동기록부 배포

□ 분임조 활동 촉진책

- 활동상황 점검 및 평가
 - 활동상황 보고회 : (실국) 발표회, (도 전체) 경진대회
 - 우수분임조에 대한 우대조치 : 인사반영, 해외시찰등
- 분임조를 최정예 전문조직으로 육성
 - 외부전문가와의 「동호모임」 결성, 워크샵 개최등
 - 관련분야 기업에 위탁교육 및 교환근무 실시

2. 그간 추진상황

□ 분임조 활동 실천기반 확립 및 제도화

- 「품질관리 분임조」 운영 기본계획 시달 ('94. 7. 1)
- 품질관리 분임조 활동 실천매뉴얼 및 기록부 배부 ('94. 7. 19)
- 충청북도품질관리분임조운영규정 제정 ('94. 7. 21)
- 분임조 구성 및 분임조별 활동계획 수립 : 165개분임조 1, 176명

□ 경영마인드 지속 확산

- 품질관리 전문가 초청 교육 : 3회 600명
 - '94. 7. 19 : 김준호 (청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)
 - '94. 8. 17 : 차쾌술 [(주) 렉키 품질관리팀장]
 - '94. 8. 30 : 차충석 차장외 화산분임조 (화산분임조)
윤생진 (금호타이어 제안왕)
- 품질관리 분임조 운영에 따른 실무간담회 개최
 - 기 간 : '94. 8. 17 ~ 8. 19
 - 참석범위 : 각실국원 계장급이상
- 품질관리 활동 촉진을 위한 관리자 연수
 - 기 간 : '94. 9. 8 ~ 9. 9 (1박 2일)
 - 장 소 : 도민교육원
 - 연수인원 : 228명 (분임장급 이상)

3. 향후 추진계획

□ 도정 개혁마인드의 확산 및 교육

- 분임조 활동 기본 · 실무교육
 - 분임장 : 전문기관 위탁교육, 분임원 : 자체 집합, 순회교육
- 품질관리 분임조 활동 운영방법 교육, 지도 전담기구 운영
 - 전문기관에 위탁교육 실시
- 분임조 회의의 날 운영 : 실국별 자율 지정
- 알기쉬운 분임조 활동방법 교육용 만화 제작 : 500부
- 우수사례 모음집 발간 배포 : 분기 1회

□ 활동상황 평가

- 도정자문단 및 연구자문팀 주관으로 분임조 등급 결정
- 분임조 활동상황 정례보고회 운영 : 매월 세째주 수요일
- 분임조단위 경진대회 운영(년2회) : 활동내용, 매뉴얼, W/P등

□ 우수분임조에 대한 인센티브제 확행

- 활동등급에 따라 인사우대 및 포상금 지급
- 각종수혜 기회시 우선권 부여 : 해외연수등
- 분임조 활동 촉진을 위한 신바람나는 직장풍토 조성
 - 가족참여 행사 개최 : 음악회, 야유회, 장기자랑등

「충청북도 이미지통합기획」 추진

□ 개 념

- CIP (Corporate Identity Program) 란 기업, 법인단체의 일체감·동질성을 높이는 심볼마크, 로고, 고유색상 등을 개발 활용함으로써
 - 단체의 바람직한 이미지를 대내외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「기업이미지 통합계획」 이라 일컬음
 - 이는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대응하여 기업경영 혁신수단의 일환으로서 70년대 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입
 - 기업의 새로운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사회에 공헌하는 이미지 홍보를 통한 경영전략으로 활발히 추진하고 있고, 정부투자기관, 행정기관 등으로 확산되고 있음
- 충청북도 이미지통합기획 (CIP : Chung Chong Buk Do Identity Program) 은
 - 도산하 공무원에게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을 심어 주고
 - 도민에게는 구심력과 자긍심을 높이고 도정의 참여와 지역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도록
 - 지역이미지를 정립하고 이를 안목있게 시각화 디자인하여 대내외 활용하고자 추진하게 됨.

- 내부적으로 「도정의 경영화」 추진으로 지방행정에 새바람을 일으켜 행정의 경영혁신을 도모하는 가운데
 - 외부적으로 도민에게 더욱 친숙한 의사소통(커뮤니케이션) 수단으로서 CIP를 개발·활용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문화적 가치기준을 향상

□ 필요성

-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우리 도는 고속교통의 중심지로서 21C 첨단산업지대로 변모하고 있으며 풍부한 관광휴양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무한한 발전잠재력을 지니고 있음.
 - 그러나 지방행정은 이론적, 행정편의적, 관료적, 무사안일 주의가 적지 않고, 관청은 곧 권위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왔음.
 - 그러므로 행정은 도민과의 일체감, 도민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였음.
(한전, 전화국 등에 비하여 신뢰감이 부족하고, 지방공무원의 사소한 잘못도 양해하려 들지 않을 정도로 불신)
 - 따라서, 관청의 이미지를 먼저 친밀감있게 새롭게 조형화하고 안목있게 시각 디자인한 CI를 「눈으로 본다」는 것으로 잠재의식속에 「아름다운 정신, 봉사하는 자세」로 바꾸도록 유도

시각적 이미지를 「보는 것」 ⇒ 감성적 의식 확산

감각적 표현의식

⇒ 이미지 영상화(시각 디자인) → 도민의 도정에 대한 관심
공무원의 행태 개선

⇒ [도정에 대한 기대감 → 자치의식 확산]
[공무원의 책임의식, 창조성 → 행정기능 활성화]

⇒ [행정에 대한 신뢰감]
[지방행정의 문화적 가치 향상]

○ 국제화·미래화 시대를 맞아 지역의 전통과 문화적 특성을 살린 이상적인 지역이미지를 선정, 이를 새롭고 안목있게 시각화 함으로써

- 폭 넓은 공감대 형성과 도민의 문화의식을 높이고 애향심을 유발하는 동기 부여
- 자랑스러운 충북인으로서 자긍심·일체감을 고취
- 국제화 시대에 부응한 진취적 사고와 행동을 유도

○ 지방행정의 새로운 이미지 부각

- 사무실 내부디자인으로 생산성 향상, 청사 현판의 교체, 청사 외벽을 이용한 상징물 홍보, 각종 공공시설물을 활용하여 미적 감각을 살린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

딱딱한 이미지를 개선함으로써 문화창조자로서의 역할 확대

- 도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시 옥내외 시설·홍보물 활용
- 각종 안내판 등의 설치에 따른 산발적인 추진으로 인한 인력과 시간, 예산의 낭비요인 제거

□ 추진 방향

- 도의 상징마크를 교체하는 문제이므로 최대한 여론수렴
 - 도의회 보고, 공청회, 언론인 간담회, 전문가초청 간담회 등을 통한 추진방향 설정
- 급변하는 시대흐름에 따라 주민의 의식도 변화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10~20년후에도 응용할수 있는 CI시스템 구축
- 단순한 표현수단으로서의 CI디자인이 아닌 통합된 이미지를 전달·관리하는 지방행정의 경영혁신 전략으로서 영속성 유지
- 충북의 주체성을 살리면서 미래지향적, 세계 지향적으로 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CI개발 활용

□ 향후 추진일정

- CIP 기본계획 수립 : '94. 9월
- 도의회 보고 및 언론인과 간담회 : '94. 9~10월
 - ※ 폭넓은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
CI개발·제작 과정에서 수시로 의견 수렴
- 시각디자인 전문업체에 용역 발주 : '95. 2월 이내
 - CI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 및 공청회 개최 : '95. 3 ~ 6월
 - CI 개발 개시, 중간설명회 개최 : '95. 7 ~ 12월
 - CI 기본편, 응용편 메뉴얼 제작 : '95. 12 ~ '96. 2월
- 상표권 등록 및 CI 운영·관리 규정 제정 : '96. 6월 이내

「충청북도 이미지통합기획」을 추진을 위한

도민의견조사 실시 ('94. 7)

— 총 934명 설문, 572명 응답 (61%) —

□ 공무원 : 총 485명 설문, 440명 응답 (90.7%) □

□ 도민 각계각층 : 총 449명 설문, 132명 응답 (29.4%) □

종합분석

- 현재 활용하고 있는 상징물의 일반적인 인지도와 미래 지향적 지역이미지 구축 방안을 묻는 설문에는
 - 응답자의 61.2%가 현재 상징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있어 도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
 - 지방화, 개방화 시대 우리지역의 이상적인 미래사회상을 「희망차고 발전하는 사회」를 원하고 있음.
- 새로운 지역상징물 선정과 CI개발방향에 있어서는
 - 도입 종류로 ① 심볼마크 ② 마스코트 ③ 캐릭터 ④ 색상 ⑤ 시그니처 ⑥ 로고타입 ⑦ 픽토그램 순으로 나타났으며
 - 활용면에 있어서 농특산품, 간행물, 홍보물, 도시환경 미화, 건축물 실내외 디자인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
 - 특히, 행정관청의 친근한 이미지 부각을 위해 청사현판을 일괄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88.9%로 나타났음.
- 도, 시군, 읍면동의 효과적인 추진범위 설정문제에 있어서는
 - 도에서 기본요소만 정하고 활용대상은 시군에 일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46.7%로 나타나 추진범위 설정에 있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.

설문조사결과 (발췌)

가. 현재 활용하고 있는 상징물의 인지도와 발전적·미래지향적 지역 이미지 정립

- 친구, 친지 등 타시도의 주민에게 충북도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는지

- ① 기회 있을 때마다 한다 : 28.5%
- ② 가끔 있다 : 59.4%
- ③ 없다 : 11.9%

⇒ 응답자중 87.9%가 충북인임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음.

- 충남, 강원 등 다른 도와 비교할 때, 충북도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한 이미지는

- ① 충절의 고장 : 24.5%
- ② 보수적이고 긍정적인 성품 : 30.4%
- ③ 수려한 산천 : 4.7%
- ④ 바다가 없는 내륙지방 : 35.7%
- ⑤ 전통의 문화·예술 : 1.0%
- ⑥ 특별히 구분할 수 없다 : 3.7%

⇒ 바다없는 내륙지방이라는 지리적 특성과
보수적, 긍정적 성품과 충절의 고장임을 인식하고 있음

○ 타도와 비교해 볼 때, 충북도민의 성향(성품)은

- ① 보수적, 전통 중시 : 44.4%
- ② 냉정·무관심 : 6.5%
- ③ 신중·소극적 : 42.7%
- ④ 지역성이 강한 배타성 : 3.3%
- ⑤ 적극·진취적 : 0.7%
- ⑥ 별다른 차이점이 없음 : 2.4%

⇒ 응답자중 87.1%가 우리도민의 성품은 신중·소극적, 보수적이고 전통을 중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적극·진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평가됨.

○ 현재 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「道旗」「도의 꽃, 나무, 새」에 대하여

- ① 잘알고 있다 : 38.6% ----- 공무원 42.5%
- ② 형태는 알고 있으나 의미하는 뜻은 모른다 : 52.3%
- ③ 전혀 모른다 : 8.9% ----- 지방의원, 언론인 등 16%~27%

⇒ 공무원을 제외한 도민은 현재 활용하고 있는 상징물에 대한 인지도가 약한 실정으로 적극적인 홍보 또는 상징물의 재선정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.

○ 현재 활용중인 도 심볼마크에 대하여

- ① 충북의 이미지를 어느정도 전달하고 있다 : 32.2%
- ② 안정되고 중후하다 : 16.3%
- ③ 발전적,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 : 18.5%
- ④ 현대적·국제적이지 못하다 : 32.2%

⇒ 긍정적 의견과 전향적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나, 심볼마크를 교체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

○ 개방화·지방화시대 우리 도민이 지녀야할 가장 이상적인 덕목은

- ① 애향심, 주인의식을 높여야 한다 : 23.1%
- ② 화합, 단결심을 높여야 한다 : 12.2%----- 지방의원 (16.7%)
- ③ 활기차고 발전적 의식을 가져야 한다 : 32.3%----- 언론인, 대학교수 (45~65%)
- ④ 공정적이고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 : 32.0%

⇒ 앞으로 우리도민은 활기차고 적극적·발전적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

○ 우리 도의 이상적인 「미래 사회상」은

- ① 희망차고 발전하는 사회 : 46.9%
- ② 건강하고 평화로운 사회 : 15.9%
- ③ 따뜻하고 친절한 사회 : 15.5%
- ④ 공평·정의·개성있는 사회 : 21.7%

⇒ 직업별로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선진국 진입을 위한 「희망차고 발전하는 사회」를 바라고 있음

○ 가장 충북적인 것 중에서 「가장 세계적인 것」은

- ① 전통 문화예술 : 34.6%
- ② 인쇄문화 : 13.3%
- ③ 양보심·예절·도덕·공정성 등 사회의식 : 5.9%
- ④ 산, 강, 청풍명월의 고장 : 4.0%
- ⑤ 은근, 끈기, 충효정신 등 정신문화 : 19.1%
- ⑥ 기타 외유내강, 질서의식 등 : 6.5%

⇒ 충북 고유의 전통예술과 정신문화가 세계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
이를 계승 발전 노력을 꾸준히 해야하는 것으로 분석됨

나. 대표성·상징성을 높이고, 알기 쉽고 안목있는 CI개발 방향

- 공공기관에서의 CI활용성 면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볼수 있는 분야는 (2~3개 종류)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지역 농특산품 | : 25.3% ----- 지방의원, 기업인, 대학교수 (30%) |
| ② 도내 중소기업 제품 | : 12.1% |
| ③ 도단위 행사시 안내·홍보물 | : 12.2% |
| ④ 도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 | : 11.3% |
| ⑤ 명함, 기안용지, 서식 등 서식류 | : 10.5% |
| ⑥ 표창장, 뱃지 등 중서류, 표지판류 | : 8.3% |
| ⑦ 도시환경, 건축물 실내외디자인 등 | : 14.3% ----- 언론인 (22%), 상업 (23%) |

⇒ CI활용면에 있어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, 특이한 점은 중소기업 경영인이 중소기업 제품보다는 지역 농특산물에 활용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으며, 상업·서비스업 종사자·언론인 등은 도시환경 미화, 도시건축을 내외 환경디자인에 높은 관심을 표시하고 있음

- 도청, 시청, 군청, 읍·면·동사무소의 청사현판을 교체할 필요성은

| | 전체 (계) | 도공무원 | 시군공무원 | 읍면동장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① 관료적 이미지를 벗고 도민에게 친밀감을 주도록 일괄적으로 변경 | 37.9% | 37.9% | 34.2% | 38.5% |
| ② 도에서 주관하여 일괄 교체하기 보다는 시군별 자율에 맞김 | 36.0% | 38.6% | 44.2% | 32.4% |
| ③ 전체 통일을 기하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2-3년에 걸쳐 교체 | 15.0% | 14.5% | 10.8% | 13.5% |
| ④ 현재 그대로가 좋다 | 9.6% | 8.4% | 9.2% | 15.5% |

⇒ 행정관서의 현판을 교체할 필요성은 지방행정 공무원 중 88.9%가 공감하고 방법과 시기면에서 다소의 시각을 달리 하고 있음. 특히, 읍면동의 경우 평균 보다 다소 높은 38.5%의 읍면동장이 일괄교체하여 주길 바라고 있음

○ 공무원이 현재 직무와 관련하여 가장 활용성이 높은 분야 (2~3 종류)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① 명함, 명패 | : 13.3% |
| ② 관용차, 청소차량 | : 7.6% |
| ③ 행정봉투, 민원봉투, 안내문 발송봉투 등 | : 12.8% |
| ④ 특산품, 방문 또는 행사 기념품 등 | : 2.1% |
| ⑤ 뱃지 | : 1.1% |
| ⑥ 민원서식, 고지서 등 | : 3.0% |
| ⑦ 기타 | : 16.0% |

※ 기타 : 직판장, 버스정류장, 이정표, 모자, 반회보, 기안지, 근무복,
보건증, 도 경계표시, 시상품, 포상, 안내장, 초청장, 쓰레기
수거용 봉투, 휴지통, 입간판, 간행물, 홍보물, 음식점, 컴퓨터,
복사기, 거리진열 화분 등

⇒ 설문시 활용의 예시로 명함, 차량, 봉투를 예로들어 이에 응답한 공무원이 많았으나
기타 16%에 보듯이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됨

○ 중소기업 경영인 또는 지역농특산물 생산·판매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의
새로운 충북도 CI를 활용할 의향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① 적극 활용하겠다 | : 48.6% |
| ② 여건을 보아 검토해 보겠다 | : 22.7% |
| ③ 자체적으로 제작 활용하고 있거나 할 계획이다 | : 5.8% |

⇒ 중소기업 제품, 지역 특산품 등에 활용할 수 있는 CIP 「응용프로그램」
개발이 요구됨